

'오월' 추모의 무대로 하나되다



극단 '후암'이 2021년 선보인 '노르망디 한 장면'.

'오월 시민군'이었지만 총을 버려두고 도망친 일로 40여 년간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김근태 화가. 삶과 죽음의 춤 '지신무' 창시자 서승아 그리고 1세대 마임리스트 유진규. '광주 5·18'을 모티브로 한 연극까지.... 행위예술, 전시,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광주 5·18을 추모하기 위해 하나로 뭉쳤다.

예술이백그라운드(대표 이당금)는 제1회 '오, 메이 백그라운드 공연예술제'를 오는 24~28일(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4시) 씨어터연바람 등에서 연다. 이번 예술제는 매년 5월마다 5·18 추모 공연을 진행해 온 30년 경력의 지역 극단 '푸른연극마을'이 예술공간 '예술이백그라운드'와 함께 마련했다.

이당금 대표는 예술계 명칭에 대해 "오, 메이"의 '오'는 김탄사이기도 하면서 '5월'을 상징하고, '오메이'라는 말은 전라도 사투리인 동시에 '5월(May)'을 상징하는 중의적 뜻을 담고 있다"며 "반가운 친구를 부르는 것 같은 공연명에 '광주 시민 모두의 5·18'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투영했다"고 말했다.

먼저 김근태 화가의 '오월, 별이 된 들꽃' 전을 오는 6월 8일까지 예술이백그라운드에서 만날 수 있다.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까지 진행하며 일요일·공휴일 휴관).

5·18 모티브 전시·연극·행위예술 '오, 메이 백그라운드 공연예술제'

김근태 '오월, 별이 된 들꽃' 전
연극 '노르망디'·'한남자' 등 다채

5·18 당시 전남도청 문지기였던 김근태는 26일 밤 도망친 탓에 평생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 왔다. 이후 고향 목포 고택도 공생 재할원에서 발달 장애인들을 모티브로 작업하며 인간의 공포, 생명 등에 천착해 왔다.

전시관에서는 공포의 탈레마에 사로잡힌 인물화 등을 볼 수 있다. 붉은 계열과 들꽃 같은 노랑, 초록, 파랑 등 다채로운 색채를 통해 영혼이 느끼는 공포와 수수를 캔버스에 형상화했다. 이 밖에도 근작 'BIO_영혼-생명 시리즈' 일부도 전시관 한편을 장식하고 있다.

광주의 고통을 극화한 다양한 작품들도 무대에 오른다. 극단 후암의 연극 '노르망디'는 오는 24일(오후 7시 30분), 25일(오후 4시) 씨어터연바람에



'상록'한다. 목표의 작은 섬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여섯 명. 태어나서 섬마을을 떠난 적 없던 이들은 현충일을 틈타 육지로 나가기 위해 부딪기로 모인다. 그 중 한 여학생은 광주에 살고 있는 언니 소식을 틈해 직접 가보고 싶어 하고, 다른 학생은 광주 극단 오디션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광주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여행을 계속하는 '강행파'와 목표에 머무르지 않는 '안전파'로 나뉘어 갈등을 겪는다.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5·18민중항쟁의 참상을 다룬 '노르망디'는 1980년 당시 고립돼 '섬'과 같았던 광주의 참상을 폭도하게 한다. 차현석 작·연출이며 최용민, 마승지, 문태수, 송경아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푸른연극마을이 2013년 상연했던 공연 '한 남자'. 행인들의 구두를 닦으며 살아가던 평범한 광주 시민 박용수는 5·18로 인해 아내를 잃고 실의에 빠진다. <예술이백그라운드 제공>

이당금 연출작으로 오성완, 김도현 배우 등이 출연하는 푸른연극마을 연극 '한 남자'도 관객들을 찾아온다. 오는 26~27일 씨어터연바람에서 상연하며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4시에 관람할 수 있다. 극적 서스펜스가 느껴지는 시놉시스는 관객들의 이목을 끈다.

오래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낡은 구두방을 지키는 '한 남자'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어느 날 저녁 생명보험회사 조사원이 찾아오면서 보험금액을 최고치로 조정할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어낸다. 구두방 남자는 무언가를 숨기는 듯 경계심을 보이며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데....

이 밖에도 마임리스트 유진규와 지신무 창시자 서승아가 출연하는 '오월 부활제'도 행사 일환으로 오는 28일(오후 7시 30분) 같은 공간에서 열린다. 유진규는 마임의 집, 유진규네 몸짓 대표를 비롯해 춘천마임축제 예술감독 등을 역임한 경력 50여 년의 한국 1세대 마임리스트다.

아울러 서승아는 일본에서 배웠던 행위예술 '지신무'를 우리나라에 토착화시킨 장본인으로 꼽힌다. 자연 회귀의 본능과 위무의 의미를 담은 지신무는 5·18 상흔을 일정 부분 치유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 후불제(연극). 무료 관람(전시).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나는 광주에 없었다'

5·18민주화운동 10일간의 이야기 관객참여형, 5월18일까지 ACC

광주5·18은 현재 진행형이다. 발포 명령자를 비롯해 암매장 부분 등과 관련 명확하게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고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쿠데타세력들은 여전히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없다. 그러는 사이 전두환, 노태우 등 쿠데타 주역들은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면서 광주5·18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광주5·18민주화운동 10일간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관객 참여형 연극이 관객들을 찾아온다.

지난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나는 광주에 없었다'가 4년 만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대에 다시 오르는 것. (5월 18일까지 예술극장 극장1)

연출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폐회식 연출을 맡았던 고선웅 감독. 그는 ACC 예술극장의 고도화된 무대기술과 자신만의 연출기법을 가미해 오월의 서사를 역동적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나는 광주에 없었다' 공연 장면. <ACC 제공>

특히 이번 작품은 최근 TV 드라마를 통해 '국민엄마'로 자리매김한 목포 출신 배우 황영희 등 극작소 마방진 배우 34명이 출연하며 지역 사물놀이팀, 조선대학교 재학생들이 보조출연자로 함께해 눈길을 끈다.

작품은 전남대 정문에서부터 시작된 5·18민주화운동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무엇보다 80년 당대를 겪어보지 못한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해 그날의 현장을 오롯이 느끼게 한다는 데 초점을 뒀다.

고선웅 연출은 "연극은 때로 사실보다 더 진실하다"는 말이 있다"며 "2시간 여에 걸친 공연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의미를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ACC는 관객이 마주보는 위치에 스크린을 설치해 생생한 무대 장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객석 바닥 보강 등을 통해 작품의 몰입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는 후문이다.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공연을 'ACC 5월 공연'으로 지속화하기 위해 관객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제작회의 등을 거쳤다"며 "무대기술이나 프로듀서 등 ACC 전문 인력이 참여해 밀도높은 작품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13세 이상 입장 가능하며, 입장권은 전석 2만원이다. 1980년생과 5월 18일생에게는 특별할인이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진리를 깨달아 번뇌망상 잇는 '영산재'

국립남도국악원 '다시 삶' 종합공연... 18일 진악당

'영산재(靈山齋)'는 불교의 가무악적 요소와 불보살의 음성인 범음(梵音)·화정(和聲) 등을 접목한 종합예술이다. 생자와 사자가 부처의 진리를 깨달아 번뇌 망상을 잇는 이고득락(離苦得樂)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불교 전도재의 한 형태다.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은 오는 18일 오후 3시 국악원 진악당에서 종합공연 '다시 삶'을 펼친다. 석가탄신일을 기념한 이번 공연은 대한 불교조계종 어산종장 '동환스님'을 특별 초청해 국악원 연주단과 함께 불교음악으로 채울 예정이다.

공연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보답할 것을 설교하는 불교 경전 '부모중경(父母恩重經)'을 쉬운 노랫말로 바꾼 '회심곡'으로 시작한다. 이어 서도민요 판별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된 남도민요 '보림', 세 명의 무용수가 흰 적삼으로 수놓는 '승무'도 관객들을 만난다.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이수자인 동환스님은 관객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노랫말이 인상적인 '화정'을 부른다. 전통 불교의식에서 유일무이하게 한글 가사로 부르는 곡이라는 점은 초월자가 아닌 중생들의 사바세계를 지향하는 노래라는 사실



동환스님이 '영산재'를 진행하는 모습.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을 환기한다. 석가모니불께 예를 표하는 '거불', 절에서 재를 옮길 때 쓰는 불교음악 범패(梵唄)의 대표적인 소리 '복청계'도 울려 퍼진다.

관세음보살을 찬탄하고 가르침을 구하는 내용의 '신묘장구대다라니'와 불교 의식무인 '전수바라무'도 볼 수 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저항으로서 민중미술' 독일 베를린서 선보인다

이상호·전정호 작가 전시

6월15일부터 마인블라우갤러리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등 도처의 전쟁들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수년째 군부독재에 의한 민간인들 탄압과 폭행, 구금 등이 자행되고 있다.

많은 예술가들은 다양한 작품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반전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제각기 시와 소설, 음악, 미술 등 다채로운 장르를 매개로 전쟁을 고발해왔던 것. 즉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전쟁의 무참함과 전쟁의 무기치함을 작품으로 구현해왔다.

민중미술을 펼쳐왔던 이상호·전정호 작가가 해외에서 전시를 열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들 두 작가는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저항으로서 민중미술'전을 연다. 마인블라우 프로젝트라운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독일Art5예술협회 유재현 총괄디렉터와 정현주 큐레이터(광주), 베를린아트 드라즈 큐레이터(베를린)가 기획을 맡았다.

유재현 디렉터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반전미술



'슬픈아헤 3'

이 큰 울림을 줬으면 한다"며 "80년대 민중미술을 지향했던 작가들의 새로운 작품들이 조명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폭 6m에 달하는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이'가 중심에 배치되며 1층과 2층에 두 작가의 시대별 주요작업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이 작품에 대해 이상호 작가는 "이한 열의 죽음과 6월 항쟁의 열기 속에 공동제작됐으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철폐·수감되면서 이적표현물로 판결받아 소각되었다"며 "전시 작품은 2005년에 다시 제작된 것으로 통일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모티브로 작품을 형상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시장에서는 역사와 연관된 신작 외에



왼쪽부터 유재현 총괄 디렉터, 이상호 작가, 전정호 작가, 유현주 큐레이터.

도 반전과 기후위기를 환기하는 작품들도 다수 볼 수 있다.

전정호 작가는 "이번 전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방향을 잡았다"며 "하나는 국가폭력 일환으로 벌어지는 전쟁을 고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환기하는 작품을 선보이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공동기획자들은 분단을 경험한 독일과 한국의 두 나라가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새로운 예술 세계를 공유하고 공감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MZ CLASSIC 막을 울려라-서곡 어디까지 들어봤니' 리허설 장면. <광주광역시음악협회 제공>

다섯명 성악가 'MZ CLASSIC 막을 울려라'

광주음협, 17일 광주예술의전당

다섯 명의 성악가가 들려주는 오페라 하이라이트. 플롯과 호른 그리고 포헨즈 피아노가 만드는 아름다운 하모니...

(사)한국음악협회 광주광역시지회(이하 광주음협)가 공연 'MZ CLASSIC 막을 울려라-서곡 어디까지 들어봤니'를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친다.

공연은 다섯 명 성악가(임지연, 김주연 등)가 들려주는 오페라 '팔리아치', '라 트라비아타', '카르멘'을 비롯해 '유쾌한 미망인', '오페라의 유령',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하이라이트로 시작한다. 이어 오페라 '박서 서곡'을 피아니스

트 기영은·박지현이 포헨즈로 들려줄 예정이다. 베이스 플루트 앙상블(음악감독 박지혜)은 오페라 '리골레토 판타지'와 '카르멘'을 네 명 플루티스트의 하모니로 채운다.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은 '작은 서곡', '사탕요정의 춤', '러시아의 춤' 등으로 이루어진 모음곡이며 그나데첼로과 르넛의 선율에 실린다.

끝으로 광주호른사운드는 웅장한 호른 사운드로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를 연주한다. 과감한 음악적 시도가 집묵된 작품으로 로맨틱한 요소, 비극성이 동시에 담겨 있다. 장현룡, 이용학 등이 출연할 예정. 전석 1만 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